

향기로운 예물

♠ **십일조헌금** 기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진우(최선미), 김구찬(최효자), 김윤주, 김지한(유소정), 김춘화, 맹관순, 박영식(성미영), 박은수, 송부현(김영진), 오택현, 윤병호(양영욱), 이기자, 이상현, 이춘휘, 이형욱, 이형문(박근욱), 정영원(김국자), 장복호, 조규영, 천세력(염영분), 최정순, 탁성주, 황성연(홍금옥), 김태대(유은자). (총 23명)

♠ **선교헌금** 기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진우(최선미), 김규찬(최효자), 김정환(임영미), 김지한(유소정), 김태준(박복순), 김희규, 박복레, 박춘자, 석형기(이희순B), 송다해, 송두현(김영진), 이기자, 이순애, 이향교, 이형욱, 장명원(김옥자), 최상걸(이미향), 현웅건(이윤옥), 황웅관, 김정태(유은자). (총19명)

♠ **감사헌금**

이필레, 김병율(이영숙, 김순석(임영덕), 김정녀, 김준익(박애순), 김태훈, 김현구(서재희), 박두웅(최귀남), 박춘자, 신영신, 이인숙, 이춘희, 전영선, 정영심, 채명엽, 최기훈(정계숙), 최봉순, 최선미, 황영옥, 무명, 유은주, 최태남.(총23명)

♠ 일천번제헌금

이진우, 이필재, 김민성, 김수현, 김정재, 김준현, 김지훈, 김정숙, 김현화, 민옥희, 박은숙,
박희영, 박복순, 배영진, 복경자, 서재희, 송복현, 신지현, 신현진, 삼순복, 안지영, 양영복,
양일주, 이강우, 이경자, 이기자, 이노을, 이미영, 이옥남, 이인숙, 정복순, 주성탁, 최귀남,
최복순, 최선미, 홍은민, 홍준민, 황영숙, 무명. (총 38명)

♠ 월정헌금

박춘자.(총1명)

주간 성경연구 * 새벽기도회 본문입니다 *

2015년 제42주: 에스겔 21장 18절 - 24장 14절				
주 일	에스겔 21장 18 - 32절			
월요일	에스겔 22장 1 - 16절	목요일	에스겔 23장 22 - 35절	
화요일	에스겔 22장 17 - 31절	금요일	에스겔 23장 36 - 49절	
수요일	에스겔 23장 1 - 21절	토요일	에스겔 24장 1 - 14절	

원로장로	이태일				
시무장로	정기성 윤조준 박서태 윤병호 강영성 김병을 최기훈 윤경호 배경철 임만순				
은퇴장로	오만식 방현욱 장영면 이해석 정경식 이원가 문영원 이일로 천세혁				
교역자	부 목 사 윤희진 김성종 전 도 사 이필례 교육전도사 문수경 이송이 최유경				
찬 양 대	지 위 자 할 벨 루 야 : 김하나 호 산 나 : 김하나 시은 : 에 덴 : 최원지 앤 질 : 이난수 오르간 심해윤 반 주 강만주 김미희 김상훈 유광희 이주하 정혜지 피아노 클라리넷 박석순 이난수 플루트 김민지 솔 리 스톱 김안나 박선희 고광훈				
선 교 사	<table border="1"> <tr> <td>태 국 : 김정숙 수리남 : 안석열 이성숙 미 국 : 김다니엘 미 국 : 최희희</td> <td> 아집트: 김신숙 A X 국: 김혜월 A X 국: 이분옥 A X 국: 박동근 김영화 </td> </tr> <tr> <td>태 국: 박영성 정세미 멕시코: 김홍기</td> <td>태 국: 박경환 이순연 A M A : 조동진</td> </tr> </table>	태 국 : 김정숙 수리남 : 안석열 이성숙 미 국 : 김다니엘 미 국 : 최희희	아집트: 김신숙 A X 국: 김혜월 A X 국: 이분옥 A X 국: 박동근 김영화	태 국: 박영성 정세미 멕시코: 김홍기	태 국: 박경환 이순연 A M A : 조동진
태 국 : 김정숙 수리남 : 안석열 이성숙 미 국 : 김다니엘 미 국 : 최희희	아집트: 김신숙 A X 국: 김혜월 A X 국: 이분옥 A X 국: 박동근 김영화				
태 국: 박영성 정세미 멕시코: 김홍기	태 국: 박경환 이순연 A M A : 조동진				
협력교회	제주 대광장교회				
협력단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G.M.S.),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소망교회도, 영등포시월회 용문세계선교회, 서울남노회 G.M.S., 오문도어선교회				

2015. 10. 11 주일 예배 설교

바울이 두려워 하는 것

설교: 이진우 목사

본문에 두려워한다는 말이 네 번이나 나옵니다. 여기 “두려워한다.”는 헬라어는 “포부마이”인데 이는 “기대 했던 일들이 이루어 지지 않음에 대한 두려움”을 뜻하는 말입니다. 바울 같은 대 사도도 두려워합니다. 사도바울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1. 나와 너희가 서로 원치 않는 모습으로 보일까 두려워합니다.

은제 20월 생 반절에서 내가 할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하기를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았을 까 두려워하오.”라 했습니다. 사도바울은 성령 바와 같이 인도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 했습니다. 이제 그와 멀리 떠나 있을 때 바울은 고린토 교회의 많은 문제와 발생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사랑과 애정으로 수많은 문제를 하나하나 다루며 성도들이 알맞게 듣고 배워야 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의 이러한 충성어린 충고와 권면에 불구하고 아직 변화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못하며 저 가운데 있는 죄가 가지는 영향을 불러왔다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토교회와 사도바울의 오해를 풀기 위하여 편지를 쓰며 바울은 자신에 대한 성도들의 기대에 자신이 못 미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고린토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기대함에 어긋났을까 두려워하고, 반대로 바울 자신이 또한 고린토교회 성도들의 기대에 어긋날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러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진정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애에 바로새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말씀을 증거 하는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며 바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는데 성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음으로 정당한 분량에 이르기 까지 자라나면, 말씀을 듣고 행함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고 예배장으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오직 그 말씀을 향하여 그들이 모여야 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여,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들이 모여야 합니다. 그럴 때, 들은 만큼 반드시 변화됩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대하여 온전히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랑함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죄악의 아직 남아 있을까 두려워합니다.

은 21절 하 반절에서 도바를 온 고린도교회의 문제를 열거하고 그들이 말씀을 듣고 변회되어 죄악 가운데서 돌아서기를 기대했습니다. "다들고 시기와 분노하고 당 강 있는 것과 비방과 소위 겸허하고 기만하고 혼란"에서 돌리켜 이제 참 거룩한 하나님의 복성으로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순종하여 선한 열매를 맺으되 서로를 세우고, 사랑하고, 은에 가운데 거하길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여 죄악이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아직 많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본문 21절 하 절에서 "또 내가 전에 죄악 있는 자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거룩해야 합니다. 죄를 용납하고 죄를 숨겨서 키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나의 문제를 지적당할 때,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며 은혜 가운데 나오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 더 나아가 두려워함으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21절 상 반절에서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네 하나님이나 너를 너의 앞에서 낫추실바가 두려워
 하고”라 했습니니다. 바울은 그 어떤 믿음의 사람들도 다 너른 은혜 체험이 없었지, 능력이 없었
 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예수를 위하여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 놓으며 헌신했던 자입니다.
 그런 바울이 자신의 지식이나, 인격이나, 영적 권위를 잘못 사용함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낫추
 실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적인 겸손이며 더욱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서 은 가운데 살겠다는 바울의 깊은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러한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권면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이자 자신 스스로에게 권책하며 다시 낮아지겠다는 사도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귀에 누우셨으며, 죄인들의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낮아 지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소 가운데 낮아지고 많은 자를 가운데 섬기는 자로 주신바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하셨습니다.

SINCE 1975

No. 41 – 42

2015. 10. 18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 [시편 80편 7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동산의 샘

A garden fountain

생수의 우물

A well of living

흐르는 시내

Flowing streams

[아가 4:15]

담임목사 Senior Pastor	이진우 Yee, Jin Woo
------------------------------	----------------------------

-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 18Gyeongin-ro 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2613-2080 / 2683-2080 / 070-8658-2080
- 팩 스: 2689-1230
- 홈페이지: www.sunghyeon.or.kr

순서	1부		3부		찬양예배		수요기도회
	기도	기도	성경봉독	사회	기도	기도	기도
1주(4일)	최성현 집사	최기환 장로	박순지 권사	윤병호 장로	윤영준 집사	전준복 권사	
2주(11일)	김성욱 집사	배경철 장로	강은미 권사	김병을 장로	박권태 집사	임영득 권사	
3주(18일)	홍준우 집사	임만순 장로	민옥희 권사	강영성 장로	강소영 집사	이희숙 권사	
4주(25일)	홍정준 집사	정기성 장로	홍영득 권사	최기환 장로	서갑철 집사	이희순B 권사	
예배안내	윤영호 배경철 임만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